

2010. 01/02

CNP 차앤박피부와 웹진 ON(온)은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謹賀新年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핫클리닉

Hot Clinic

2010 차앤박피부과가 제안하는
이벤트는 **탐구생활**

PAGE : 2



편인터뷰

Fun Interview

와인 한잔 하실래요? 와인프로포즈
천안 CNP차앤박피부와 김현조 원장

PAGE : 5



줌인

Zoom In

즐거운 상상이 실현되는곳
수원 CNP 차앤박피부와

PAGE : 7



해피타임

Happy Time

나의 생각을 여는 **key, memo**
이숙빈 교육팀장의 메모법 대 공개

PAGE : 10



포스트잇

Post-it

한사람을 위한 선물,
주는 기쁨을 알게해준 **수공예**
신촌점 김지성 간호사

PAGE : 13



칭찬릴레이

Praise Relay

선덕여왕 보종 백도빈이 칭찬하는
김현자 에스테티션

PAGE : 16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npskin.com/webzine>에 방문하시면 CNP 차앤박피부와 웹진을 보실 수 있으며, 댓글, 방문후기 작성시 행운이 따릅니다.

햇클리닉 : Hot Clinic

CNP 차안박의 피부과 시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예뻐지세요!



“

2010 차안박피부과가 제안하는 이빠치는 탐구생활 우리 모두 이빠지기로 해요~ 해요~ 해요

여드름 이젠 맞춤치료해요 여드름편

사실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처럼 외모가 중요한 시기엔 여드름은 치명타예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마음은 이미 물건너 갔어요. 할머니가 추천해주는 민간요법 썼다가 다음날 얼굴에 볼구멍이 생겼어요. 나를 노려보는 듯한 볼구멍이 노란 봉우리에 손을 가져다 대버렸어요. 초절정 쓰나미예요. 내 외모 그래도 어디까지 빠지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방학 중에도 엿지있게 여드름 치료 받을 수 있어, 포토스케일링

요즘 10대들은 충분하지 못한 수면과 학업으로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진다. 이러한 호르몬의 불규칙과 과도한 피지로 인해 여드름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가 많다. 신경숙게 많은 시기에 여드름으로 인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심코 지나쳐 치료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학업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스케일링 치료와 광선치료를 결합한 **포토스케일링**이 도움이 된다. 이 시술은 일반적인 치료들이 시술 후 2일 가량 야외 활동이 어려웠다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방학 중에도 학업을 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치료다.





1:1 맞춤치료! 효과 지켜보며 프로그램 선택, A Young Skin Program

CNP차안박피부과에서는 여드름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개인별 시간을 고려한 4주, 8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중 주말 치료만 가능한 학생들은 8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스킨 스케일링과 PDT 치료, 여드름 쿨젠 테라피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 특히 PDT치료는 약을 먹거나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 없이 빛을 쏘여주는 것만으로 여드름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며 1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이 이뤄지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여드름에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여드름 치료와 함께 피지 과다, 모공 확장, 블랙 헤드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 방학을 이용해 학업 뿐 아니라 내 피부에도 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해 규칙적인 시간표를 짜보도록 하자.

2010년에는 아싸라비아 새롭게 탄생해 보아요! 직장인편

10대때는 여드름으로 속을 썩이더니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에요. 원래 피부가 이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여드름 흉터래요. 이럴수가. 지긋지긋한 여드름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봐요. 달표면 같은 내 피부, 알고보니 원인은 모공이었어요. 흉터와 모공 이 두가지가 내 인상을 마이너스 50으로 깎아 먹는 주범이었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동료가 한마디 하네요. 얼굴에 기미는 어떻게 할꺼냐면서요. 우라질레이션! 정말 2010에는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흉터와 모공 치료로 아가 피부로 리뉴얼, DRT 진피 재생술

흉터와 모공치료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은 DRT 진피 재생술이다. 진피층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킨다는 장점과 수천 개의 미세 열치료 존을 활용해 원하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차안박피부과의 오랜 시술 경험과 노하우로 지난해 DRT 진피 재생술의 효과는 고객들의 입소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스타룩스 1540이나 폴라리스 등의 시술을 함께 받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성화되어 여드름 흉터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말 그대로 진피를 재생시키는 치료로 여드름흉터와 함께 모공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내 피부속 색소 지우개, 기미레이저

여러가지 이유로 내 피부에 남아 있는 색소! 한번에 없어지면 좋겠지만 색소치료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게 아니다. 색소치료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상 생활에서 자외선차단제를 생활화하는 등의 습관도 중요하다. 진피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멜라닌을 자극하지 않아 더 검어지는 부작용이 줄인 기미레이저. 열손상 없이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내 피부 속의 색소를 효과적으로 지워준다.

보통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악성기미가 있던 피부도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될 수 있는데 보통 1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시술하면 좋다. 쿨젠티라피와 병행 치료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편인터뷰 : Fun Interview

CNP 차앤박피부과의 인연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와 와인 한잔 하실래요? 와인프로포즈”

천안 CNP차앤박피부과 김현조원장

신의 물방울 와인! 와인 마니아층이 늘어나면서 와인의 대중화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와인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었다. 블로그를 통해 와인 즐기기에 빠진 김현조 원장의 프로포즈가 향긋하다.

김현조 원장의 와인과의 첫 만남은 천안에 있는 '쿠치나'라는 이태리 레스토랑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레스토랑 대표가 워낙 와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한두번 자리를 함께 하면서 와인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렇게 스며들 듯 빠져든 와인의 세계! 이제는 집에 조그마한 와인바를 마련해 놓을 정도로 와인마니아가 되었다. 그 만의 와인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한 원칙이라기 보다는 제가 즐기는 방법은 와인을 우선 따
른 후 가볍게 잔에 와인을 코팅하듯 롤링을 해줍니다. 이래야
향이 잔에 가득 퍼지거든요. 그리고 코를 대어서 향을 맡아 보
니다. 이후 한모금 마신 후 양치하듯 입안 구석구석 와인이 달
게 하면 향으로만 느껴지던 와인이 맛으로 느껴집니다” 여러 가
지 미사여구를 사용해 표현해도 좋지만 속도
의무도 공부도 아니고 단지 즐기는 음식이니까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달다,
텅텅하다, 거칠다 등
느껴지는 대로
그저 즐기면 된다고...



김현조원장



한모금을 마신 후 숨을 내쉴 때 코로 내쉬게 되면 좀 더 깊은 향미를 느낄 수 있는데 초보라도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법인 소주나 맥주처럼 원샷은 절대 금물이다. 와인이 가지고 있는 풍미의 20%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김현조 원장은 미국와인인 켄달잭슨, 콜롬비아 크레스트, 칠레와인인 몬테스 알파 등 주로 2-4만원대 와인을 주로 즐기는데 고가의 와인보다도 가격대비 풍미가 좋은 '착한' 와인이기 때문이다.

처음 와인을 즐기자 한다면 2만원대 전후반의 와인을 접해 볼 것을 권한다. 저가 와인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와인을 음미하는 것은 고사하고 와인을 멀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와인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피부과 시술 경쟁이 불필요하게 시작되면서 자꾸 싼 시술비용을 쫓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진료와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선불리 치료를 받다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거나 피부과를 멀리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009년 히트 상품으로 손 꼽히는 '막걸리'에 비해 와인이 너무 서양적이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와인이야 말로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류라고 말한다. 와인과 같이 즐기는 음식으로 파스타와 닭요리, 찹스테이크를 선호하지만 김치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게 와인이라고 한다. 서재 겸 와인바에 앉아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한잔을 기울이면 하루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김현조 원장. 분위기는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와인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는 풍요로움을 선물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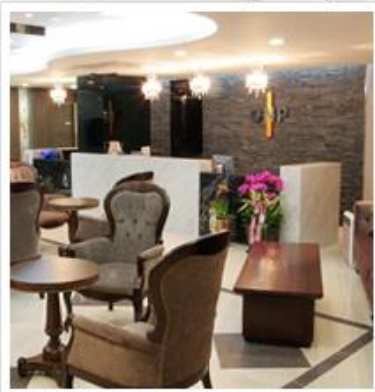


줌인 : Zoom In

CNP 차앎박 피부과의 지점을 소개하는 코너로 보이지 않는 2%까지 지점의 면면을 시원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즐거운 상상이 실현되는곳, 피부사랑 zone



CNP 차앎박피부과 수원점

저녁 8시.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점. 출입문을 통해 고객이 들어서는 고객을 향해 '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수원점 직원.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듯한 우렁찬 목소리에 오히려 고객이 쑥스러워 한다. 병원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맞춰 달려온 고객의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다고, 즐거운 상상이 실현되는 피부사랑 Zone 차앎박 피부과 수원점의 온도는 항상 뜨겁다.

피부를 위한 즐거운 상상이 실현되는곳

일본 일초가 특별함이다.

수원역과 마주하고 있는 수원점은 말그대로 '명당'에 자리 잡았다. 주위에 피부과가 3~4개 준비해 있지만 차앎박 피부과의 명성은 독보적이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에 대해 물으니 고객 한명 한명이 그들을 대하는 일본 일초가 특별함이라고 한다. 수원의 소문난 피부미인 이민숙 원장은 미소가 참 따뜻하지만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시원하게 답해 주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는 물론 고객들의 경조사까지 챙겨 고객만족을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 사이에서 '미소천사'로 통하는 이정훈 원장은 모범답안 같은 꼼꼼함으로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

“고객들 대부분이 2007년 오픈때 인연을 맺은 분들이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질환 치료로 만족을 하고 이후에는 이러저러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오시죠.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데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해드립니다.” 이민숙 원장이 말하는 수원점의 경쟁력이다.

직원공감, 고객공감

수원점의 자랑거리로 직원들간의 돈독한 '정'이라고 말하는 안인숙 팀장.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한다. "마니도 행사를 줄곧 해오면서 친구처럼 언니처럼 직원들의 관계가 돈독해요. 직원끼리 마음이 통하다 보니 고객을 대하는 마음 또한 이심전심이 된답니다. 가족 같은 편안함에 프로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로 고객과의 공감도 이뤄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주 파트별 회의가 진행되는데 부서장들과 원장님과의 대화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고객들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작은 것까지 신경 쓰고 있다. 실제로 쓴소리 단소리 함을 주기적으로 바꿔 고객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고. 오픈 이후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시작된 '쓴소리 단소리'함은 단소리 함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칭찬 일색이다. 원장님 팬데터에 직원들의 서비스에 감동했다는 사연까지 고객들의 단소리가 수원점을 더욱 달콤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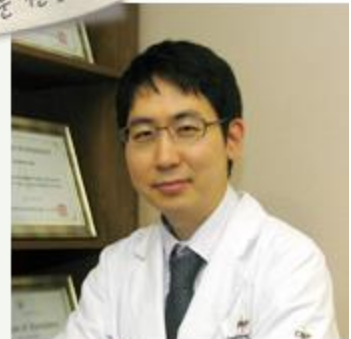
수원점 고객들은 차안박 피부과의 명성을 듣고 찾아 왔다가 그 치료효과와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직원공감이 고객공감으로 시너지는 내는 것이다. 2010 수원점의 고객사랑 예보는 '맑음'이다.



이민숙 원장



이정훈 원장



쓴소리 단소리







해피타임 : Happy Time

CNP 차앎박 피부과의 기분 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장스케치를 담았습니다.



“



나의 생각을 여는 key, memo

아이디어뱅크 (주)CNP홀딩스 이숙빈 교육팀장의 메모법 대공개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각오들을 하게 된다. 영어공부,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운동, 금주, 금연까지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각오다. 이러한 결심을 도와줄 결심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점에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바로 다이어리다. 혹시 새해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이어리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차앎박피부과 네트워크의 직원들의 전반적인 교육을 총괄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이숙빈 교육팀장 역시 새해를 맞이해 다이어리를 마련하고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그녀의 성공적인 한해를 위해 해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 중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한다. 유용한 교육을 위한 생각으로 일상을 지내다 보니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사고, 책 글귀,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적인 키워드 까지 일상들을 꼭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메모가 습관이 되기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와 수업료를 지불했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교육계획들을 세워놓은 페이퍼를 분실한 거예요. 야심차게 준비하고, 공을 많이 쏟았던 프로젝트였죠. 찾는데만 삼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의 허무함과 무기력, 아쉬움까지 겹치면서 일할 의욕도 나지 않았습시다. 기억을 다시 되돌린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어요. 교육 계획을 짜기 전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거였는데 놀랍게도 그 키워드를 보니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풀리지 않던 기억의 실타래가 뽀빠스 띠처럼 스르륵 풀리는 것을 보며 메모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메모가 나의 생각을 여는 키였던 거죠.”

메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메모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생각은 물과 같아서 담는 그릇에 따라 천양지차로 모양이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이숙빈 팀장의 지론이다. 그녀가 말하는 메모법은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메모하라’는 것이다. 바쁜 일과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무엇보다 아주 소박하게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이수빈 팀장의 메모법 따라하기

1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전에는 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처리한 내용들 순으로 과감하게 줄을 긋습니다. 오후에는 퇴근시간 전에 처리를 못했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합니다. 너무 평범한 비법이라고요. 제 메모법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죠.

2 자기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 보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에 메모해 보는 겁니다. 단 5분이라도 좋고, 포스트잇에 키워드 한 개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모여, 그 메모가 모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메모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요령도 생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수첩과 펜을 드는 습관이 생기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메모하게 됩니다.



3 미래를 위한 메모를 하세요.



이제 메모에 좀 익숙해 졌다면 마치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인 양 미래의 꿈을 메모하세요.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현실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의 꿈을 쓰고 실제로 현실이 되는 행복감을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너무 허황된 것이라고요? 그저 바라고 있기만 하면 안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겠지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현재의 나를 자꾸 긴장하게 합니다. 계속 노력하게 말입니다.

포스트잇 : Post it

CNP 차앎박피부와 가족의 추억에 노랑, 파랑, 빨강의
포스트잇을 붙여 모두의 추억으로 엮어가는 코너입니다.
hasowsow@cnpskin.com



“

단 한사람을 위한 선물, 주는 기쁨을 알게해준 수공예

사진, 글 신촌점 김지성 간호사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한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란다. 신촌점 김지성 간호사는 본인에게 손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때다. 지루한 수업시간에 활기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담임선생님이 종이접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때 간단한 종이접기 인데도 각양각색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졌는데 스스로 종이접기를 제법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접한 종이접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를 노크했다. 이후 도자기공예와 클레이아트는 언니가 전공하고 일로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말그대로 어깨 너머로 익히면서 취미가 되었다.



“페이퍼아트, 클레이아트, 도자기공예는 그냥 들으면 제각각인거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만드는 거 자체가 좋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 선물로 주게 되면서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한 페이퍼아트가 애착이 많이 간다는 김지성 간호사. 특히 하트벽걸이와 신랑신부인형이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 특별히 만들어서 선물한다고.



수공예는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한다. 하나하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충 만들면 바로 티가 나는 게 또한 수공예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작업에 열정과 흥미가 있어 즐기면서 한다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보답한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수공예의 가장 큰 기쁨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작품을 만들어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똑 같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수공예의 매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고객을 대하는 마음 또한 이와 같다고 한다. 고객의 고민은 같아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순간 성심을 다한다는 김지성 간호사. 그녀가 만들어내는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유다.



칭찬릴레이 : Praise Relay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CNP 차안박피부과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공간입니다.



“스타, 휴식 같은 친구 차안박피부과를 이야기하다

선덕여왕 보종 백도빈이 칭찬하는 김현자 에스테티션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화랑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보종' 백도빈씨가 매니저도 없이 편안 친구집을 찾아오듯 차안박피부과를 방문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차안박피부과의 고객이라 편안하게 방문한다는 백도빈씨는 사람 좋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가 말하는 휴식 같은 친구 차안박 피부과와 칭찬하는 직원을 소개한다.



차안박 피부과는 자주 방문하는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몇 개월은 다니지 못했지만 피부케어의 필요성을 느낄 때면 편안하게 찾아온다. 특히 선덕여왕은 사극이라는 특징과 야외촬영이 많았던 관계로 분장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에 자외선 위험도 만만치 않았다. 이유없이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ERT레이저필링을 받고 피부 톤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레이저시술이라고 해서 붉은기가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술 받았다는 느낌 없이 일상에 복귀가 가능했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주변 사람들이 시술 받은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연기자인 나에게 딱 맞았다. 시술 하나하나도 나의 상황과 피부 상태를 잘 알고 처방 내려주는 곳이 바로 차안박피부과다.

차안박 피부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휴식 같은 친구!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랜 인연이 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내 피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무엇보다 피부과전문인에 대한 믿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케어 시스템이 좋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편안함은 기본이다. 아무래도 편안 곳을 찾게 되기 때문에 차안박 피부과를 고집하는 것 같다. 휴식 같은 친구라고 할까.

향후 작품활동 계획은?

2010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전쟁영화가 많이 준비중인데 4월쯤 크랭크인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앞으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시청자들을 자주 뵈 계획이다.

선덕여왕 '보종' 백도빈이 칭찬하는 김현자 에스테이션



표현이 좀 서툴지만 '손 끝이 참 야무지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엇보다 다음 단계를 가능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설명을 잘 해주는 거 같다. 한두 마디로 끝나는 설명이지만 다음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건 케어받는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 처음에는 설명을 해줘도 잘 알지 못했는데 자주 듣다 보니 어느새 신뢰감이 쌓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알아서 조심해 케어 받고 내내 긴장을 했지만 김현자 에스테이션의 세심한 케어로 그 시간만큼은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게 됐다. 고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만큼 큰 미덕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현자 에스테이션을 칭찬하는 일 또한 기쁜 일이다.